기록과 실물을 통해 본 조선시대 습신(履・鞋)

- 김원택 일가 출토 습신 중심 -

장 인 우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A Study on Supsin(Shoes for dead) in 18th Centur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Records and Excavated Relics

Chang, In-woo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9. 3, revised date: 2015. 10. 14, accepted date: 2015. 10. 1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upsin* (shoes for dead) in late *Chosun* dynasty through records and excavated relics. The research records in this study were two types which one was official records as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朝鮮王朝實錄), Dairy of the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ets and the other was private records as Korean literary collections of confucian scholars in classical chinese(文集) ect. as for relics use two types of materials that one is the excavated *supsin*s and the other is Research Reports of Excavated Costumes published from museums.

Through the *Collections*, we can notice that shoes were several types which *Wunhae*(雲鞋), *Danghae*(唐鞋) *Onhae*(溫鞋) *Wunli*(雲履), *Taesaehae*(太史鞋) in *Chosun* dynasty. these were worn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wearer's gender, the social status, daily life or rituals, inside or outside in palace. *Wunhae* and *Wunli* was the most ceremonial shoes for man and *Onhae* was the most ceremonial shoes for woman. the dead man worn the *Wunhae* or *Wunli* for *Supsin* and the dead woman worn *Onhae*. we could see

they use the most ceremonial shoes for *supsin*.

through the records, we could see the change that Women's *Supsin* was written for the first time in 18th *Sarapyeonram*(四禮便覽). men's *Supsin* was recorded as '履', while Women's *Supsin* was recorded as '鞋' in *Sarapyeonram*. the reason for making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an in costumes(男女有別). and the excavated *Supsin* showed that the dead worn more ceremonial shoes than records. these changes mean one of the results for making korean style rituals from chinese style(國俗化).

Key words: excavated *supsin*(습신, shoes for the dead), *onhae*(溫鞋; Shoes for the woman)

wunhae(雲鞋: shoes decorated with cloud pattern),

wunli(雲履: shoes decorated with cloud pattern)

본 논문은 2014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Chang, In-woo, e-mail: Changiw@Incheon.ac.kr

I. 서언

2003년 충청북도 청주에 소재한 광산 김씨의 문중 묘역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김원택(金元擇, 1683-1766)을 비롯한 부인 청송 심씨(靑松 沈氏, 1718 卒)와 아들 김상직(金相直, 1716-1773) 그리고 며느리 한산 이씨(韓山 李氏, 1712-1777)와 전주 이씨(全州 李氏, 1722-1791) 등 일가의 무덤에서 습신 5 켤레가 수거되었다. 습신은 김원택 일가 외에 이진승, 신경유 그리고 행주 기씨 등 18세기 전후 무덤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조선 후기 염습 제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남녀 습신은 모두 신목이 없으며 신올타리와 밀창으로 구성되어, 혜(鞋)의 형태와 구성이 유사하다. 이런 연유로 발굴 이후 구름으로 장식된 남자 습신은 ‘운혜(雲鞋)’로, 여자 습신은 ‘혜’ 또는 ‘채혜(彩鞋)’ 혹은 습신으로 명명되었다(Chang, 2006)(Choi, 2010)(Kim, 2012)(Kwon, 2007)(Oh & Noh, 2012)(Park, 2008)(Song, 2007).

그러나 조선후기 사례편람(四禮便覽) 습의조(襲衣條)를 보면 남자 습신은 ‘리(履)’, 여자 습신은 ‘혜’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어(Lee, 1746) 실물과 달리 왜 남녀 습신이 다른 명칭으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또 출토 습신이 명명된 혜(鞋)는 革부에 圭가 합성된 글자로 기록에서도 …鞋革履也…혜는 가죽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물로 남은 혜의 대부분이 가죽신이다. 이러한 글자와 기록 그리고 실물을 통해 볼 때 가죽은 혜를 상징하는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굴된 조선후기 습신은 혜의 구성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이로 만들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직물로 제작되어 있다. 여기에서 혜로 추정되는 출토습신이 왜 가죽이 아닌 직물로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외 조선후기 출토 운혜는 남자의 신인 반면 근현대 운혜는 여자의 신으로, 운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착용자의 성별이 바뀌는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후기 운혜와 근현대 운혜는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신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화, 혜, 리를 중심의

총체적 관점에서 진행되거나 근현대 민속조사에 의한 연구로 한정되어 왔다(Cho, 2005)(Cho, 2006)(Cho, 2009)(Cho, 2013)(Choi, 2015)(Park, 2008). 그러나 최근 18세기 전후 무덤에서 발굴되는 습신과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文集) 번역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복식사 분야에서도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학자들의 문집, 문헌, 출토복식 보고서 그리고 출토 습신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리와 혜에 언급된 내용을 분석하여 그 착용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근대 혜의 구성을 기초로 출토 습신을 조사하여 리와 혜의 구성적 특징과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착용과 구성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조선후기 습신의 특징을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II. 기록에 나타난 조선시대 ‘鞋’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의궤(儀軌), 만기요람(萬機要覽) 등의 관찬사료와 유학자들의 문집인 사찬사료에서 당혜, 운혜, 온혜, 태사혜(太史鞋) 등에 대한 기록의 빈도와 저자의 생졸연대를 토대로 시기적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의하면 운혜, 당혜, 온혜는 조선시대 전 시기에서 확인되는 반면 태사혜는 19세기에 이르러 *하제일기*(荷齋日記)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어(Kim, 1988) 운혜, 당혜, 온혜와 달리 조선시대 말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온혜는 그 동안 착용 시기가 조선후기로 한정되어 왔던 것(Kim, 1988)과 달리 태종실록을 비롯한 15세기 기록에서도 볼 수 있어, 온혜의 착용 시기를 조선시대 전시기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 <Table 1>에 의하면 운혜와 당혜는 관찬사료뿐 아니라 사찬사료에서도 볼 수 있는 반면 온혜는 실록과 *만기요람* 그리고 *의궤* 등 관찬사료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그 착용이 궁 안에서의 신으로 제한되었던 추정(Kim, 1988)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에 보이는 당혜와 운혜 그리고 온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Chronicle and Types of *Hae* through Records on *Chosun* Dynasty

Time	Record	kind	Danghae	Wunhae	Onhae	Taesahae
15	<i>Taejong Sillok</i> [太宗實錄] (1408)				○	
	<i>Sejong Sillok</i> [世宗實錄] (1420)			○○	○	
	<i>Danjong Sillok</i> [端宗實錄] (1452)			○		
	<i>Sejo Sillok</i> [世祖實錄] (1460)				○	
	<i>Haedongjekookgi</i> [海東諸國記] (1471)			○		
	<i>Seongjong Sillok</i> [成宗實錄] (1480,93)				◎	
16 · 17	<i>Toegye-jip</i> [退溪集] (1570)			○		
	<i>Joongjong Sillok</i> [中宗實錄] (1525)		○			
	<i>Boosanglok</i> [扶桑錄] (1640)		○			
	<i>Songja Daejeon</i> , [松子大典] (1607-1689)		◎			
	<i>Seungjeongwon-ilgi</i> [承政院日記] (1626)				○	
	<i>Dongsalok</i> [東槎錄] (1811)		○			
18	<i>Yangwha-jip</i> [養窩集] (1700)		○			
	<i>Sookjong Sillok</i> [肅宗實錄] (1718)				○	
	<i>Damhun-jip</i> [湛軒集] (1783)		◎			
	<i>Nasan-jip</i> [羅山集] (1809)		○			
	<i>Yeongjo Sillok</i> [英祖實錄] (1725, 50,51)		○		◎	
	<i>Garyedogam-uikue</i> [家禮都監儀軌]			◎	○○	
	<i>Yeongeongjae-jip</i> [研經齋集] (1830)		◎	◎		
	<i>Dasansi-moonjip</i> [茶山詩文集] (1836)		○			
	<i>Yeoyudang-jeonseo</i> [輿猶堂全書] (1836)			○		
	<i>Hongjae-jeonseo</i> [弘濟全書] (1800)			○		
	<i>Haedongyeoksa</i> [海東歷史] (1814)				○	
	<i>Raengcheonyugo</i> [冷泉遺稿] (1815)			○		
	<i>Ilseonglok</i> [日省錄] (1790)		◎	◎		
	<i>Nakhasaeng-jip</i> [落下生集] (1835)			○		
19	<i>Maesan-jip</i> [梅山集] (1852)		○			
	<i>Joongjong Sillok</i> [中宗實錄] (1798)		○			
	<i>Seungjeongwon-ilgi</i> [承政院日記] (1864)				○○	
	<i>Moomyeonja-jip</i> [無名子集]		○			
	<i>Jeungjeong-gyorin-ji</i> [增正交隣志] (1802)		○			
20	<i>Mangi-yoram</i> [萬機要覽] (1808)			◎	○○	
	<i>Haje-ilgi</i> [荷齋日記] (1891)		◎	○		○
	<i>Jinhyun-uikwe</i> [進宴儀軌] (1902)				○○	

○1, ◎ 2, ○◎ 3, ◎◎4 times (statistics by researcher)

1. 당혜(唐鞋)

당혜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착용자와 형태에 관한 것이다. 중종실록에 기록된 전교에서 “...함경도와 평안도의 변방을 지키는 장사(壯士)들에게 검은 서피

로 만든 당혜를 내려주라...”¹⁾(Joongjong Sillok, 1525)는 기록과 영조실록(1750)에서 “...정군의 자식들은 모두 도포를 입고 당혜를 신는다...”²⁾(Yeongjo

1) ...○傳曰 ... 裘肚一領、黑黍皮唐鞋...

2) ...正軍之子舉皆衣道袍曳唐鞋...

Sillok(1750)는 기록은 당혜가 조선중기에 이어 후기에 이르기까지 변방과 중앙의 군인뿐 아니라 정군의 자식들까지도 착용하던 신이었음을 알려준다.

또 정약용은 *다산시문집*에서 “...당혜는 남자 연복(燕服)차림의 창의와 도포와 같이 신는다...3)”고 (Jeong, 1836a) 하였고 이세구는 *양와집*에서 “...관례의 재가 의례시 도포와 함께 당혜를 착용한다...”4) 고 (Lee, 1700) 하여 당혜는 도포와 창 의 차림에 착용하는 신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도포와 당혜 차림에 대하여 정조실록에 “...양인(良人)은 도포를 입지 못하며 중인은 당혜를 신지 못한다...5)” (Jeuogio Sillok, 1798)는 기록과 또 저자를 알 수 없는 글에서 “...신분이 낮은 자들은 감히 탕건과 도포에 당혜 착용을 금하나, ...이를 범한 자는 죄로 다스린다 하였으나, ... 신분이 낮은 자들이 도포와 당혜를 착용하고 ...탕건을 쓰지 않은 자가 없다...6)” (Mu-myueong-ja-üp, n.d.)고 하여, 사서인 가운데 중인 이하 신분이 낮은 자들에게는 도포와 당혜의 착용이 제한되었음을 알려준다.

정조의 *일성록*에는 “...당혜를 신은 채 꺾내 난입하여 법을 어긴 죄에 처벌을 윤허하였고, 이에 형조가 장(杖) 60을 친 뒤 수안군에 도(徒) 1년으로 징배하겠다고 아뢰었다...” (Jeongjo, 1792)는 내용과 조유선의 *다산집*에 보이는 ...서인(庶人)이 도포나 당혜를 착용하는 자 ... 통렬하게 징벌을 가하는데...서인은 경중에 따라 결태(結笞)7)로 한다...” (Cho, 1809)는 내용, 그리고 홍직필의 *매산집*8) (Hong, 1852)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당혜 착용에 대한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규제는 결태의 형벌로도 다스려졌으며 특히 꺾내를 출입 시에는 장 60과 1년 징배에 이를 정도의 처벌을 받았음을 볼 수 있다. 시

기적으로 18세기와 19세기에 이러한 규제의 내용들이 빈번히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이후 당혜 착용이 저변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가죽신인 당혜 착용의 확대는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이 중인이하 사람들에게 확대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본다.

이러한 당혜의 착용은 이경직의 *부상록*에 기록된 “...승려가 가죽신을 신었는데 대략 당혜의 제도와 같다...”9) (Lee, 1640)는 내용을 볼 때 승려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혜 형태에 대하여 이경직은 그 재질이 가죽임 (Lee, 1640)을, 송시열은 “...흑리는...끈이 있는 신이나 오늘날의 당혜와 유사하다...10)” (Song, 1689b)하여 신코를 제외하면 리와 유사함을, 홍대용은 “... 단화는 同俗唐鞋...우리나라의 당혜와 유사하다...11)” (Hong, 1783)고 하여 당혜가 신목이 짧은 신임을, 성해응은 “...지금의 당혜, 운혜를 만들 때 신머리에 꽃이나 구름 등을 새기는 것이 ...12)”라 (Sung, 1836) 하여 당혜는 신코가 없으며 신목이 짧은 가죽신임을 보여준다. 꽃장식의 기록은 현재 민속품인 당혜의 꽃장식과도 이어지고 있어 여자의 착용일 가능성도 시사되나 이는 앞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운혜(雲鞋)

운혜 착용에 관하여 *세종실록*에 보이는 “...상의원의 근장(近仗)은 자색 명주 두건과 자색 명주 저고리 그리고 운혜를 신는다...13)” (Sejong Sillok, 1432)는 기록과 정조의 *홍제전서*에 기록된 “...용호영의 금군은 집에 있을 때 물금패를 차고 번을 설 때는 당운혜를 신는다...14)” (Jeongjo, 1800) 내용, *가례도감 의궤*에 기록된 “...담배군(擔陪軍), 부지군(負指軍)은 건과 학창의와 함께 운혜를 신는다 ...15)” (Gar-ye-

3) 議 公服 ... 氈衣 道袍 紅條帶 唐鞋 毛扇...

4) ...再加...衣用道袍之類 繫唐鞋...

5) ... 而良人之道袍, 中(路)〔人〕之唐鞋...

6) ...着宕巾道袍唐鞋而着周衣草履 ...犯者捕治... 而常漢着道袍唐鞋 ...

7) ...庶人之著道袍唐鞋者...庶人從輕重決笞
결태(結笞) 형(刑)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태형(笞刑), 장형(杖刑), 곤형(棍刑)의 세 종류가 있다. 결태는 결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태형을 가하는 것이다.

8) ...庶人簪道袍唐鞋者 一切禁斷 不從令者結笞...

9) ...唯僧着皮鞋 略如唐鞋之制...

10) ...黑履深衣章所謂白紵純綦者是也 先師掌言今之唐鞋相近...

11) ...靴用黑紬緞 長之于膝 其靴亦用黑緞與東俗唐鞋略同

12) ...今制唐鞋雲鞋鞋頭 加花雲之屬是也...

13) ... 尙衣院人 依近仗例 着紫紬頭巾着袖紫紬衫雲鞋 ...

14) ...龍虎軍之禁旂 ...在家佩勿禁牌 入番穿唐雲鞋...

dogamuikue, 1759a)는 내용, *가례도감 의방의궤*에 언급된 정련군(正輦軍) 복장 “...홍의, 두건, 홍색 무명 띠, 청색행전과 학창...온혜...”의 내용(Garyedo-gamuikue, 1759b)과 *만기요람*에 기록된 “...연배군(輦陪軍)은 홍목의(紅木衣), 건(巾), 띠(對)와 청목행전(靑木行纏)과 함께 온혜를 착용한다...¹⁶⁾”(Mangiyoram, 1808)는 내용들은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온혜는 근장¹⁷⁾, 금군, 담배군¹⁸⁾, 부지군, 정련군, 연배군(Lee, 2008) 등 여러 군인들이 착용하던 신이었음을 알려준다. 여기서 근장은 왕의 좌우에서 시위를 맡은 군인이며, 용호군과 금군 그리고 연배군 모두 의장행렬과 관련된 군인들이라는 공통점을 볼 때 온혜는 의장행렬시의 군인들이 착용하는 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세종실록*에 기록된 “...왕비의 상제 때 기년을 마치며, 우내시 이하 졸곡 이후 견마배, 정권달배, 의대배의 여러 관원들은 백포 직령의에 백온혜를 착용하며...졸곡 후에는 백목면 액주음의와 흑초립과 함께 흑온혜를...또 담제 후 개배와 교자배는 졸곡 후에 백의, 흑두건, 백전대, 흑온혜...를 시위병장도 흑온혜를 신는다...”¹⁹⁾(Sejong Sillok, 1446)는 내용은 온혜가 학창의와 직령의 그리고 액주음 차림에 착용되었던 신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외 온혜의 착용은 *가례도감의궤*에 보이는 귀유치(歸遊赤) 복장 가운데 ‘...흑단온혜(黑緞雲鞋)...’ (Garye-dogam-uikue, 1759a)라 하고, *세종실록 오례의*에 기록된 “...노부 가운데 입장하는 마부는 청의에 온혜를 착용한다...²⁰⁾(Sejong Sillok Oryeui, 1450)...”라 하여 온혜는 상례 시, 의례나 행렬에 참여하는 내시와 어린이(귀유치) 그리고 마부들도 착용하는 신이었음을 보여준다.

온혜의 형태에 대하여 이학달은 “...오늘날 사대부들이 신는 당혜(唐鞋)와 온혜(雲鞋)는 또한 중국의 제도이다. ...쌍검(雙臉)은 곧 지금의 가죽신이고, 운두(雲頭)는 지금의 온혜(雲鞋)를 이른다...²¹⁾”(Lee, 1835)라 하여 구름 장식의 가죽신임을 강조하고 앞의 어린 내시 귀유치 복장에서 ‘흑단 온혜’의 기록은 직물 온혜의 착용도 보여준다.

이외 이재호의 *해동제국기*에 기록된 “...사신으로 부임 받은 상관과 부관에게 지금물품 항목에 보이는 검은 말가죽 ‘온혜’...²²⁾”(Lee, 1471)와 *세종실록*에 기록된 풍락에 표류해 온 김선주에게 내려 준 선물 품목 가운데 온혜...²³⁾”(Sejong Sillok, 1435)의 기록은 온혜가 외국으로 떠나는 사신 혹은 귀화인에게 주는 선물품목에 속할 만큼 귀한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3. 온혜(溫鞋)

온혜에 관한 내용은 *태종실록*에 예조에서 상제(喪制)를 상정하는 내용 “...宮主의 상복(喪服)에 백피온혜(白皮溫鞋)...를 사용하라”는(Taejong Sillok, 1408) 기록과 *세조실록*의 효령대군 이보(孝寧大君 李補)의 납징(納徵) 예물 단자에서 “...온혜 3개...”의 기록(Sejo Sillok, 1460), 또 *세종실록*의 천전(薦奠) 제사 의식을 올리는 물목에서 “...粉紅緞子溫鞋...”(Sejong Sillok, 1420), 또 *숙종실록* 예장도감에서 길흉에 관한 의장에 관한 내용에 “...분홍단자동화와 납단자리와 함께 온혜...”의 기록과 세주에서 “...온혜는 분홍단...”(Sookjong Sillok(1718), 그리고 *만기요람*에서의 ‘...당피 온혜...’²⁴⁾(Mangiyoram, 1808), *진현의궤* 내진연시의 시위와 차비의 세주에서 보이는 ‘...홍색 온혜...’ (Jinhyun-uikue, 1902)의 기록들은 온혜가 상례와 가례 및 연회 등에서 착용되던 신임을 보여준다.

15) ...巾, 鶴氅, 雲鞋, 行纏, 紅木帶...

16) ...輦陪軍所着紅木衣 巾 帶 靑木行纏 各 一白三十件
...雲鞋一百件修補價錢三十七兩 ...

17) 조선시대 임금의 좌우에서 시위(侍衛)를 맡아보던 중앙軍

18) 국장(國葬)때 상여를 매는 군인

19) 王妃喪制, ...祥後, ...蓋陪橋子陪, 白衣白頭巾熟麻帶白雲鞋白行纏, ...卒哭後, 白衣黑頭巾白全帶黑雲鞋...卒哭後, 侍衛兵仗, 制盡前, 白衣黑頭巾白鶴掌白全帶黑雲鞋...

20) ...仗馬二匹具鞍粧 居中分左右 各二人牽 著靑衣襪色笠雲鞋...

21) 唐鞋雲鞋, 今士大夫所穿唐鞋及雲鞋 亦華制也...按雙臉即今之通行皮鞋 雲頭 即今所謂雲鞋也...

22) ...國王使上副官人 各給九綜緇染木綿長衫一, 單袂隨時九綜白綿布長衫一 鴉靑羅內藍綃僧官一 黑麻皮雲鞋一, 九綜白綿紬白苧布黑馬布各一匹...

23) ...帝賜金先主等 綵絹衣, 靴襪, 白毛針綿布衣裙雲鞋, 婦人綵絹衣靴襪 ...

24) ...黑唐皮溫鞋七部 每價五兩二錢三分白唐皮草鞋二部每價二兩二錢九分

또 승정원 일기에 보이는 “...단오에 각 궁에 봉진하는 예를 가운데 응주방(翁主房)에 올리는 온혜...”의(Seungjeongwon-ilgi, 1725) 기록과 만기요람에 기록된 혜경궁(惠慶宮) 홍씨²⁵⁾와 가순궁(嘉順宮)²⁶⁾의 물목에서도 ‘당피 온혜’(Mangiyoram, 1808), 또 진현의궤의 진연시 주청과 전도를 맡은 상궁 및 여관들의 착용 의대 가운데 ‘홍색 온혜’(Jinhyun-uikue, 1902), 가례도감에 기록된 상궁과 유모와 시녀 및 나인의 의대물목에 보이는 ‘흑옹피 온혜(溫鞋)’²⁷⁾(Garyedogam-uikue Youngjo-Jeungsoon-whanghu, 1759)와 영조실록 장례 물품에서 ‘온혜’(Yeongjo Sillok, 1751), 또 승정원일기 상례에 사용한 의복제도에 대한 논의에서의 ‘온혜’(Seungjeongwon-ilgi, 1626), 승정원 일기 단오날 각 전에 진상하는 물목에서 “...삼혜(鞞鞋)와 함께 온혜를 봉진한다...”는(Seungjeongwon-ilgi, 1879) 기록에서 온혜는 왕비를 비롯한 후궁, 응주, 왕세자비, 상궁 등의 내명부 뿐 아니라 나인에 이르기까지 궁 안 모든 여인들의 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온혜의 색상은 상례에서는 백색이나, 흑색과 분홍색 그리고 홍색 등으로 다양하나 대부분은 흑색임을, 온혜의 재질은 가죽과 직물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가죽의 경우는 당피, 마피, 옹피 등 여러 종류의 가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옹피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옹피온혜는 가례도감의궤 왕비의 혼례 의대 물목²⁸⁾에서도 보일 정도로 귀한 것으로 사치 품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실록에 기록된 “...사신 강육의 친지 가운데 여인들에게 마피 온혜(馬皮溫鞋)를 사여하였다...”는(Seungjong Sillok(1480) 내용과 또 의금부에서 뇌물을 받은 정승조, 김자정, 김여의를 죄율에서 “...옹피 온혜(熊皮溫鞋)를 뇌물로 받았다...”는(Seungjong Sillok, 1493) 기록은 왕의 사여 품목과 뇌물품목인 점으로

보아 일반 사대부 여인도 온혜의 착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가례도감의궤에 보이는 온혜장 “...박상휘(溫鞋匠 朴尙輝)와 ...김수천(金壽天), 최태구(崔泰九), 임시담(林時淡), 강위세(姜渭世)...”(Garyedogam-uikue, 1759)와 진현의궤에 기록된 “...전영득(田永得)...²⁹⁾”(Jinhyun-uikue, 1902) 등 다수의 온혜장은 온혜가 일정 형태와 제조법을 갖추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더 나아가 그 착용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만기요람 세주에 기록된 혜의 가격을 살펴보면 “...黑唐皮 結花溫鞋는 5냥 3전 5푼인 반면 白唐皮草鞋는 2냥 4전 1푼... 온혜는 5냥 2전 3푼...”(Mangiyoram, 1808)으로 화온혜는 초혜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고가이나 온혜보다는 약 1전 3푼의 가격 차이만 보이는 것으로, 화온혜와 온혜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격과 왕비의 가례와 탄일 의대 물목에서만 볼 수 있는 화온혜는 왕비의 온혜이며 온혜 가운데 최고의 온혜임을 보여준다.

4. 태사혜(太史鞋)

남자의 신인 태사혜는 중국 명나라로 부터 유래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Choi, 2015) 기록에서는 *하례일기*에서 확인될 뿐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혜, 온혜, 온혜에 비하여 태사혜는 상대적으로 매우 늦은 시기인 조선말기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례일기*에 기록된 “...왜청(倭靑) 40근을 사 왔는데, ...반주(班紬) 1필과 막의자차(莫衣子次; 마고자감) 1건(一件) 태사혜(太史鞋) 1켤레를 옷 보따리 속에 싸서 보냈다...”³⁰⁾(Haje-ilgi, 1891)는 내용에서 태사혜가 수입 물목에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일본과의 교역품목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당혜, 온혜, 온혜, 태사혜를 착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혜, 온혜, 태사혜는 남

25) ...黑唐皮溫鞋七部 每價五兩二錢三分 白唐皮草鞋二部 每價二兩二錢二分...

26) ...黑唐皮溫鞋七部 每價五兩二錢三分 白唐皮草鞋二部 每價二兩二錢九分

27) ...中宮殿衣櫛, ...黑熊皮花溫鞋... 尙宮四人黑熊皮溫鞋... 乳母侍女 黑熊皮溫鞋... 騎行內人 步行內人 黑熊皮溫鞋... 本宮內人黑熊皮溫鞋... 步行內人黑熊皮溫鞋... 本宮內人 黑熊皮溫鞋...

28) 中宮殿衣櫛, ...黑熊皮花溫鞋...

29) ...溫鞋匠 田永得二名 ...

30) ...倭靑四十斤買來 價文每斤一百兩式 春葉便下送 唐木二疋付送 班紬一疋 莫衣子次一件 太史鞋一件 衣櫛中裏送 公堂宅帶率等 ...

자의 혜였으며 온혜는 여자의 혜로, 남녀의 혜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온혜는 의례 참례 시 착용하는 신이며, 특히 의례참여자 신분에 관계없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온혜는 쥔 밖은 물론 쥔 안에서도 착용이 가능하였던 신이었다. 반면 당혜는 군인 그리고 정군의 자제 그리고 중인 이상의 사서인의 편복에 착용하는 일상시의 신이었으나 중인 이하는 그 착용이 제한되었던 신이며, 쥔 밖에서만 신을 수 있는 신이었다.

온혜는 학창의, 직령의, 액주의 차림에 함께 착용하며, 당혜는 창 의와 도포 차림에 그리고 초리는 두루마기 차림에 착용하는 신이었음을 알려준다. 온혜는 쥔내 왕비를 비롯한 비빈 및 상궁과 나인에 이르는 쥔내 내명부 여인들이 신는 신이었음을 보여준다.

III. 출토 습신의 구성

본 장에서는 민속학자 예용해선생님이 혜를 제작하는 장인(匠人)들을 대상으로 한 민속조사에서 밝힌 근현대 혜의 구성과 명칭을 바탕으로 출토습신을 조사하여 조선시대 남녀 습신과 근현대 혜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혜의 구성요소와 명칭

예용해는 남자 혜를 '태사혜'로, 여자 혜를 '온혜'로

구분하였으며, 두 혜의 형태와 구성을 <Fig. 1, 2>와 같이 묘사하였다(Ye, 1997). 이에 의하면 태사혜와 온혜 모두 신올타리와 밑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본구조는 유사하나 신코 형태와 장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1) 신올타리

예용해는 혜의 발을 감싸는 부분을 신올타리라 하였으나(Ye, 1997), 채정민 이명은 그리고 송미경 등 연구자들은 신올이라고 하였다(Chai, 2011)(Lee, 2011)(Song, 2007). 국어사전에서 '신올'(Lee, 1986)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신올타리에서 유래된 신올이 보통명사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과 밖을 구분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올타리의 기능은 발을 감싸고 보호하는 신올의 역할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러한 역할에서 명칭이 차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올은 <Fig. 1, 2>에서와 같이 좌우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장의 신올은 신의 앞뒤 중심에서 연결되었으며, 이 연결선을 '휘'라 하였다. '휘'는 단청에서 색과 색을 구분하는 색 띠(Lee, 1986)로 경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신의 좌우 신올 연결선인 앞뒤 봉제선을 '휘'로 명명한 것은 봉제선이 좌우 신올을 구분하는 경계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용해는 휘 가운데 앞 연결봉제선을 '코휘'라 하고 뒷연결선을 '취휘'라 기록하였다. 코휘는 사람의 얼굴 가운데

<Fig. 1> Male *Taehae*(太鞋) Construction (Ye, 1997)

<Fig. 2> Female *Wunhae*(雲鞋) Construction (Ye, 1997)

가장 앞으로 나온 기관인 '코'를, 또 취휘의 취는 동물의 꼬지 살을 뜻하는 한자 '취(翠)'로, 코와 꼬지를 통하여 휘의 위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휘는 앞 경계선이며 취휘는 뒤 경계선이란 위치와 의미를 명칭에 담고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코휘를 오준석과 노수정은 앞코라 하고(Oh & Noh, 2012), 김영재는 신코라 하고(Kim, 2012), 이명은은 앞축(Lee, 2011)이라 했다. 그리고 척휘를 김영재와 오준석 그리고 노수정은 뒷축(Kim, 2012)(Oh & Noh, 2012)이라 명명했다. 이처럼 최근의 명칭은 경계의 의미보다는 위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코휘와 척휘는 <Fig. 1>에서와 같이 남자 태사혜에서는 육안으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반면 여자 운혜의 척휘는 <Fig. 2>에서와 같이 머구리와 굽뎡이 장식으로 가려져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남자 태사혜의 신코는 <Fig. 1>에서와 같이 길이가 길며 코끝은 각이 진 사각(方) 형태인 반면 여자혜의 신코는 남자 혜에 비하여 매우 짧으며 형태는 <Fig. 2>와 같이 원형(圓)으로, 남녀 혜의 신코는 착용자의 성별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여자혜의 신코는 <Fig. 2>에서와 같이 '앞 머구리'라 하여 남자의 혜와는 다른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머구리'는 국어사전에서 '검은 반점 개구리와 비슷하나 잔등이 퍼런 풀빛 개구리'라 하였다. 개구리가 아닌 머구리란 특정 명칭을 차용한 것은 머구리의 푸른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현재 민속에 남아있는 여자 운혜의 앞코가 대부분 푸른색인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

또 <Fig. 1>에서와 같이 남자 혜는 '코휘'의 각진 끝 부위를 '코끝'이라 하고, 장식실을 '코실'이라 하며 '취휘'의 장식실을 '취실'이라 하였다. 여자의 혜에서는 <Fig. 2>와 같이 코실 장식은 보이거나 뒤 머구리와 굽뎡이 장식을 취휘와 취실이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용해는 남자 태사혜 코휘 좌우에 위치한 태사문양 장식을 '앞눈'이라 하였으며, 취휘의 좌우 태사문양 장식을 '뒷눈'이라 하였다. 반면 여자 혜의 신코 주위는 뎃잎으로 또 뒷축 부위의 장식을 '머구리'와

'굽뎡이'이라 하였다(Ye, 1997).

<Fig. 1, 2>에 의하면 혜의 신울타리 걸면 위와 아랫부분의 장식을 예용해는 '윗벼나', '아랫벼나'라 하였으며, 아랫벼나는 여자 운혜에서만 표현되고 있다. 또 조선회는 이를 변감이라(Cho, 2011) 하였다. 국어사전에서 명칭 '벼나'는 가장자리 변(邊)과 비단 나(羅)가 합성된 한자어 '변나(邊羅)'로 가장자리 비단(Lee, 1986)이란 뜻이다. 이러한 한자어 변나가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벼나' 혹은 '변감' 등으로 전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두 어휘가 모두 가장자리를 뜻하는 '변'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끝장식이란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예용해는 <Fig. 1, 2>에서 울타리 안감의 상부를 '도리'라 하였다(Ye, 1997). 어휘 '도리'는 목조 건축에서 가장 윗부분에 놓이는 수평 구조물을 이르는 용어(Lee, 1986)이다. 신울타리 내부 윗부분을 도리라 한 것 역시 건축에서 도리의 역할과 일치한다. 이를 조선회는 신의 입구에 대는 재료부분이라 하였다(Cho, 2011). 이외 예용해는 설명에서 창 의 가장자리를 감싸는 부위를 '대대리'라 하여 구분하였다(Ye, 1997).

2) 밑창

예용해는 혜의 밑창은 걸창, 중창, 도두개 등 3개의 층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Ye, 1997). 이러한 밑창을 채정민은 안창과 밑창이라(Chai, 2011) 하였으며, 김영재와 오준석과 노수정은 바닥이라 하였고(Kim, 2012)(Oh & Noh, 2012), 김영재는 착실이라고도 하여(Kim, 2012), 최근 연구에서 동일부위가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용해는 <Fig. 2>에 의하면 '혜'의 밑창 가운데 가장 위 창을 '담'이라 하여 융을 사용한다 하였다(Ye, 1997). 이러한 '혜'의 신울타리와 밑창은 맞바느질로 연결되었으며, 맞바느질 봉제선 밖으로 나온 시점을 '창구루'라 하였다. '구루'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더러운 것이 새어 나온다는 뜻의 불교어휘 '구로(九漏)'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추된다. 구루의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九는 음양의 양의 종수(終數)로 끝을 의미하며 漏는 셀루로, 맞바느질의 봉제선 밖으로 나온 시점 즉 밑창과 신울타리의 끝시점으로 명칭 구루의 한자적 의미

와 일맥상통한다. 이외 도두개는 물건을 쌓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경상도 사투리 '도두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러 겹으로 구성된 밑창 구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근현대 해의 구성요소는 신올타리, 밑창, 코휘, 척휘, 코실, 척실, 앞눈과 뒷눈, 앞머구리, 굽뺑이, 변나, 도리, 대대리, 겹창, 중창, 도두개와 담 그리고 창구루 등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해의 구성 부위별 명칭은 코·눈은 사람, 척·머구리·굽뺑이는 동물, 올타리·휘·도리·대대리·도두개는 건축물, 창구루는 불교, 변나는 의류로부터 구성부위의 역할을 상징하는 어휘로 차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의 구성은 <Table 2>와 같으며 신올타리, 밑창, 코휘, 척휘, 변나, 도리, 대대리, 겹창, 중창, 도두개, 담, 창구루는 남녀의 해 모두에서 공통적인 구성요소인 반면 코실, 척실, 앞눈, 뒷눈은 남자의 해에서만, 앞머구리와 굽뺑이는 여자의 해에서만 나타나는 구성요소로, 착용자의 성별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2. 출토습신의 구성

남자습신은 김확(1572-1633)(Song, 2007), 송효상(1430-1490추정)(Kwon, 2007), 송희종(16세기 중-16세기 후)(Kwon, 2007), 이진승(1581-163)(Choi, 2010), 신경유(1581-1633)(Park, 2008), 이익정(1699-1782), 김원택(1683-1766) 그리고 김상직(1716-1803)묘에서 출토되었으며, 여자 습신은 동래 정씨(1567-

1631), 행주 기씨(17세기 추정)(Kim, 2012), 충주박씨(16세기 후-17세기 초)(Kwon, 2007), 안동 김씨(17세기 중반 추정)(Lee, 2011), 청송 심씨(1683-1718), 한산 이씨(1712-1772), 전주 이씨(1722-1792)묘 동래 정씨(Song, 2007)에서 출토되었다. 습신이 출토된 무덤 주인의 생졸연대에 의하여 추정한 출토 습신의 착용 연대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17·18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출토습신은 종이에 직물을 매접한 경우와 직물로 제작된 경우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그 형태가 완전히 보존된 직물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재질

습신의 재질을 살펴보면 김원택과 김상직 습신 모두 겹창은 공단이며 안감은 명주이고, 이외 김확(金燮, 1572-1633) 습신(No. 51)에 대하여 조효숙과 이은진은 명주선단으로 구성되었다(Cho & Lee, 2007)고 하였으며, 송미경은 겹창은 향라 조직과 유사한 견직물이며 바닥은 한지로 구성되었다(Song, 2007)고 하였다.

청송 심씨와 한산 이씨 그리고 전주 이씨 습신은 모두 겹창은 공단이며 안감은 명주로 구성되었으며, 조효숙과 이은진은 동래 정씨 습신의 겹창은 연꽃무늬 5매 화문단이며 바닥은 한지로 구성되었다고 하였고(Cho & Lee, 2007), 김영재와 오준석 그리고 노수정은 행주 기씨(1600추정) 습신은 겹창이 모란영지칠보문단이며 안창 바닥은 삼베로 구성되었다고

<Fig. 3> *Wun-ik*(雲履) Excavated from *Kim Wontek*' Tomb(Photograph by Researcher)

<Fig. 4> *On-hae*(溫鞋) Excavated from Lady Lee's Tomb(Photograph by Researcher)

하였고(Kim, 2012)(Oh & Noh, 2012), 김영재는 신
울에서 풀숨심도 보인다고 하였다(Kim, 2012). 또 채
정민은 수원 이의동 안동 김씨 습신은 견직물 주
(紬)로 구성되었으나 현재 신울만 남아있다고 하였
다(Chai, 2011).

이와 같이 습신 재질은 대부분 단직물과 명주의
견직물이었으며 이외 종이와 삼베 등도 보이며 여자
습신은 문양단이 보이는 반면 남자습신은 공단만 사
용된 것으로 여자습신이 남자습신에 비하여 재질에
있어서 다소 화려하게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2) 구성요소

〈Table 2〉에서 남녀 습신은 모두 2개의 신울로 구
성되었다. 이러한 신울 겉감의 상부에서는 윗변나 장
식이 보이며, 코휘와 척휘의 좌우에서는 코실과 척실
장식이 관찰된다. 김원택과 이진성 그리고 신경유 출
토 남자습신들의 윗변나와 척실과 코실은 약 0.8cm에
서 1cm 크기의 직물띠(Chang, 2006)(Choi, 2010)
(Park, 2008)이나 여자 습신의 윗변나와 코실과 척실
은 실로 구성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녀 습신의
창구루는 모두 맞바느질로 봉제되었다. 청송 심씨,
한산 이씨, 전주 이씨 등 여자 습신의 경우 신울타리
안감 상부에서 도리 구성이 관찰되며 척휘 부위에서
는 근피 구성이 보인다. 도리는 약 0.8cm 나비의 덧
단으로, 또 근피는 약 4.6cm 나비와 약 2.6cm 길이의
사각형 덧단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도리의 재질과
크기 및 위치는 남자 습신의 윗변나와 유사하였다. 여
자 습신의 도리 구성은 남자 습신의 직물 변나에 비
하여 신울의 윗부분의 지지력이 약한 여자 습신의 실
변나의 기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구성으로 유추된다.

김원택, 이진성, 신경유 등의 남자 습신은 코휘와
척휘 위에 구름문양으로 장식된 반면 청송 심씨, 한
산 이씨, 전주 이씨, 동래 정씨 등의 여자 습신은 코
휘 위에 술로 장식되었다. 이러한 술장식에 대하여
송미경은 동래 정씨 습신의 술장식을 ‘국화동’이라
하였으며(Song, 2007), 또 정미숙과 목진애는 금선단
의 술받침으로 장식되었다고 하였다(Jeung & Mok,
2007). 이외 청송 심씨 습신에서는 나비와 보문과 함
께 모란문양의 자수 장식 등을 볼 수 있어, 여자 습

신의 장식은 대부분 식물문양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자 습신의 구름문양 장식은 코휘와 척휘
위에 장식되어 신울타리가 1장으로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는 반면 여자 습신의 코실과 척실은 코휘와
척휘 좌우에 장식되어 신울타리가 2장임을 강조시키
는 시각적 착시를 보여준다. 이러한 코휘와 척휘의
장식으로 인하여 출토 습신의 신울에서 보이는 1과
2는 음양사상의 수 개념에서 볼 때 1은 양수이며 2
는 음수로 착용자 성별과 일치한다. 이러한 신울타리
구성이 음양사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나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되기 바란다.

김원택의 습신은 3개의 창 즉 겹창과 밑창 그리고
그 사이의 심감으로 구성된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3겹의 창은 누벼져 있으며 그 위에 담으로
한 겹 덮여져 있으나 이 담에서는 누빔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남녀 습신의 구성요소는 신울타리,
변나, 코실, 척실, 창구루 등으로, 그 구성이 유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자습신 가운데 김원택
의 습신은 신코 고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름문양으
로 장식되어 ‘운리’라 할 수 있다. 반면 이진성과 신
경유의 습신은 신코 고리의 구성을 관찰할 수 없으
나 구름으로 장식된 신으로 ‘운혜’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김원택 운리와 이진성과 신경유의 운혜는 신코
고리를 제외한 구성이 유사하였다. 따라서 기록에서
의 리와 혜의 구성적 차이를 출토실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학달이 “...가죽 혜에 구름머리 장식
을 하면 운혜라 한다...”고(Lee, 1835) 내용으로 당
혜와 운혜의 구성이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맥락
에서 기본구성이 남자 습신과 유사한 여자습신 역시
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에서 여자 혜는
운혜임을 볼 때 출토 습신을 운혜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남녀 습신의 차이는 색상에서도 보인다. *상례비요*
와 *사례편람*에서 습신의 도면은 ‘흑리도(黑履圖)’라
기록되어 있어(Choi, 2015), 남자 습신이 흑색임을
알려준다. 출토 남자 습신의 색상이 진한 갈색으로
흑색에 가까운 색상인 점을 볼 때, 기록과 실물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반면 여자습신은 ‘채혜(彩鞋)’

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자 출토습신 역시 연한 색상으로 남자 출토습신과는 색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기록과 실물에서 남녀 습신의 색상이

유사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퇴색되거나 변색된 출토 습신의 본래 색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하였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루

<Table 2> Comparative Composition of Excavated Shoes

		Time name Gender	Material component part	Male						Female					
				chosean			Modern			chosean			Modern		
				Wunhae			Taehae			Onhae			Wunhae		
				Lea- thers	Tex- tiles	thre- ad	Lea- thers	Tex- tiles	thre- ad	Lea- thers	Tex- tiles	thre- ad	Lea- thers	Tex- tiles	thre- ad
Ou- ter	wool-ta-li (울타리)	1piece													
		2piece		○		○				○		○	○		
	sin-ko (신코)	have		○											
		none				○				○		○	○		
	tassel	have								○					
		none		○		○						○			
	upper beonna (윗변나)			○		○					○	○			
	lower beonna (아랫변나)			○		○					○	○			
	Kohui beonna (코휘변나)			○		-	-	-			○	-	-	-	
	chikhui-beonna (척휘변나)			○		-	-	-			○	-	-	-	
	kohui-kuloo (코휘구루)									○					
	chikhui-kuloo (척휘구루)									○					
	apnoon (앞눈)			○		○				-	-	-	-	-	-
	dwinoon (뒷눈)			○		○				-	-	-	-	-	-
	kosil (코실)					○					○	○			
	chuisil (척실)					○					○				
	ap-merkuli (앞머구리)		-	-	-	-	-	-	-	-	-	○			
	dui-merkuli (뒷머구리)		-	-	-	-	-	-	-	-	-	○			
	koombaeng i (곰뱅이)		-	-	-	-	-	-	-	-	-	○			
lin- ing	Kunpi (근피)		-	-	-	-	-	-		○		-	-	-	
	Doli (도리)		-	-	-	-	-	-		○		-	-	-	
Mo- tif	Cloud (구름문양)			○											
	star (태사문)					○									
	plants (식물문)										○	○			
soles	chang-kuloo (창구루)			○		○				○		○			
	Dam (담)			○			○			○			○		
	outer soles (겉창)			○		○				○		○			
	middle soles (중창)			○		○				○		○			
	dodoogae (도두개)			○		○				○		○			

(table by researcher)

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록에서와 달리 실물에 나타난 구성에서 남녀 습신은 구성 외에 장식문양의 종류, 변나와 코실 그리고 착실의 재료와 크기 및 신올타리 구성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IV. 기록과 실물을 통해 본 습신

1. 습신의 시기별 변화

습신에 대한 기록은 조선중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상례비요(喪禮備要)의 염습의(殮襲衣)(Chang & Lee, 1995)조 원문에서 남자 습신만 ‘履’로 언급하였으며, 상례비요에서는 세주에서만 여자 습신을 ‘혜’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조선후기 이재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여자 습신에 관한 내용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³¹⁾(Lee, 1746a). 여자 습신은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세주에서 원문에 기록되는 시기적인 변화를 보인다. 이는 여자 습신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풍속으로 정착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중국 의례로부터의 변화 즉 차별화로, 김근행이 언급한 남녀동복(男女同服)의 중국복제에서 남녀이복(男女異服)의 우리나라 복제로의 국속화(Chang, 2013)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편람에서 남자습신은 襲衣條 …陳襲衣의 세주에서는 履로, 諸具(陳襲衣)條 원문에서는 ‘履’으로 기록되고 있다. ‘履’은 관례(冠禮) 진관복조(陳冠服條) 세주에서 다시 ‘리’로 설명되고 있어³²⁾(Lee, 1746a), 당시 리와 국이 서로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여자 습신에 대하여 김장생은 ‘습혜(襲鞋)’로(Kim, 1631), 이재는 ‘彩鞋’(Lee, 1746a)라 하여 남자 습신과 달리 ‘혜’로 기록하고 있다.

‘혜’로 기록된 여자 습신은 출토 습신에서도 ‘혜’의 구성으로 기록과 실물이 일치하는 반면 남자 습신은 기록에서는 ‘리’이나 출토 습신 가운데 김원택 습신

만 ‘운리’인 반면 이진성과 신경유 습신 등 대부분은 ‘운혜’로 운혜가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남자 습신에서 보이는 기록과 실물에서의 차이는 남자 습신이 기록보다는 실생활에서의 신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선후기 남자신이 혜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송시열은 송자대전에서 “...습신으로 흑리 뿐 아니라 당혜도 함께 볼 수 있다...”하여(Song, 1689a), 습신이 ‘리’뿐 아니라 ‘혜’로 확대되고 있음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는 여자 습신이 혜로 기록된 것과 남자 습신이 실물에서 혜인 점, 모두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습신의 시기별 변화는 남녀유별이라는 사회적 틀과 새로운 신발의 유행이라는 사회현상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2. 습신의 구성과 실행

이재는 ‘리’는 신코 고리(紉)가 구성된 검은 직물신이라 하였으며, ‘혜’는 신코 고리가 없는 가죽신(Lee, 1746b) 이라한 우암의 말을 인용하여 리와 혜의 차이를 신코 고리의 유무와 재질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 따르면 출토 남녀 습신 모두 직물신으로, ‘리’인 남자 습신은 기록과 일치하나 남자 습신인 운혜와 여자 습신인 온혜가 직물신인 점은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혜의 재질구성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습신의 재료를 직물로 한 것에 대하여 김장생은 “...備要에서 여상(女喪)에서의 습혜를 가죽이나 풀을 먹이지 않는 비단신으로 하는 것은 기생이 번식할 것에 대한 염려이다...³³⁾(Kim, 1631)라고 설명하였다. 즉 습신으로 쓰는 ‘혜’를 직물로 만든 배경이 무덤을 파고 드는 해충을 예방하여 시신의 훼손을 줄이기 위함임을 세주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김장생의 설명은 조선후기 여유당전서에서도 재인용되고 있어³⁴⁾(Jeuong, 1836b), 습신 혜가 직물인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조선중기뿐 아니라

31) ... 履, ...彩鞋...

32) ... 履 用黑絹或阜布 襠紙爲材 又用二白帶或組長二尺餘 橫綴於履後跟 又於履頭以條紉而受繫穿貫... ...鞋 尤庵曰 革履謂之鞋 又履之無紉謂之鞋 ○帽子以下再加服 ...

33) 女喪有綵鞋則用之 ...○備案襲鞋 宜以縗紙綴成 勿用皮革糊綴致生蟲蛀也 ...

34) ...備要 女喪有綵鞋則用之 ○備案襲鞋 宜以縗紙綴成 勿用皮革糊綴致生蟲蛀也 ...

후기 사회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혜가 직물신인 것은 일상의 이해에서 벗어난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편람에 기록된 남자습신 '리'와 여자습신 '혜'는 현재까지 출토된 습신을 통해 볼 때 남자습신은 '운리', '운혜'이며 여자습신은 온혜이다. 운리와 운혜에 대하여 황유석과 남공철은 학창의와 함께 신는 일상신이라 하였으며(Hwang, 1791³⁵)(Nam, 1840³⁶), 또 김이안의 초상화에서 심의 차림에 착용된 운리와(Choi, 2015), 이학달이 조복에 신는 '조혜(朝鞋)'에 비유한 것(Lee, 1835³⁷)을 종합하면 운리와 운혜는 남자들의 최대 의례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자 온혜는 조선시대 여자들의 대표적인 의례신임을 볼 때, 남녀 습신 모두 당시 최고의 의례신으로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기록에서 흑리와 채혜인 남녀 습신이 남녀 최대의 의례신인 운리와 운혜 그리고 온혜로 출토되는 것은 중국 예서를 그대로 답습한 예서와 달리 격이 높은 신으로 상향된 예로 실행하였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기록과 출토습신에 나타난 남녀 습신의 착용과 구성을 살펴 시기별 변화와 그 실행을 통하여 조선 후기 습신을 이해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 운리(雲履), 운혜(雲鞋), 당혜(唐鞋), 온혜(溫鞋), 태사혜(太史鞋) 등 다양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신발이 공존한 배경은 착용자(성별과 지위)와 때(일상과 의례), 장소(궐 안과 밖), 의복 차림에 따라 신발의 종류를 달리 착용하는 격식을 갖춘 신발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착용 격식에 결태라는 처벌은 신발이 신분에 따른 사회적 규제(規制)의 대상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하극상의 의복생활이 하나의 유행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볼 때 *상례비요*와 *사례편람* 모두에서 원문으로 언급되는 남자습신과 달리 여자 습신이 *상례비요* 세주에 처음 기록되는 것은 조선중기에 있어서 남녀유별이 시도되고 있음을, 또 사례편람 원문에 다루어지는 변화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남녀유별이 정착되었음을 시사한다. 또 '리'로 기록된 남자습신이 출토습신에서는 '혜'로 출현하는 현상은 생활 속의 신을 습신으로 채용한 것임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당시 염습의는 정채된 관습에 의한 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옷을 염습의로 사용한 것으로, 저승과 이승을 하나의 연장선으로 보는 순환계 사후관(死後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남자습신 운리와 운혜는 당시 심의, 학창의 차림에 신는 신으로 조혜에 비견되는 신이며 여자습신 온혜는 왕비를 비롯한 내외명부 신으로, 남녀 모두 최대의 의례신을 습신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습신이 기록에서의 '리'와 '혜'보다 상향된 의례로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당시 상례를 치르는 후손들의 조상에 대한 정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에 나타난 남녀습신의 유별화와 상향된 의례로의 실행된 출토습신은 중국 의례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의례로의 변화하고자 한 국속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 출토습신인 운혜와 온혜가 모두 직물신으로 제작된 까닭에 대하여 관 속에서 해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남자의 혜인 운혜와 당혜, 여자의 혜인 온혜는 근현대로 내려오면서 운혜와 당혜는 여자의 혜로 바뀌며 남자의 혜로 태사혜가 등장하는 반면 온혜는 사라지는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근거는 19세기 전후 *하제일기*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기록과 실물을 분석해 본 연구 결과 조선시대 운혜는 구름장식의 남자의 신이고 온혜는 꽃장식의 여자의 혜이었다. 착용자의 성별과 장식구성의 측면에서 근현대의 운혜는 꽃장식의 여자의 신으로, 조선시대 운혜보다 오히려 온혜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현재 여자의 혜가 운혜로 명명된 것은 운혜가 잘못 기재된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민속에서 여자혜로 명명된 운혜는

35) …考夢一老人鶴髦冠冠藜杖雲履 …

36) … 鶴髦衣碧雲履 …

37) 唐鞋雲鞋 …不得穿廂邊雲頭履。俗呼朝鞋…即今之通行皮鞋。雲頭。即今所謂雲鞋也…

은혜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Chang, I. W. & Lee, C. K. (1995). A Study on Chosun period burial Clothing In 15th to 17th Centu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5, 269-284.
- Chang, I. W. (2006). *KIM WON-TAEK Graveyard Excavated Costumes*. Cheungju, Republic of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 Chang, I. W. (2013). A Study on the Origin and Clothing Composition of the *Yemo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7), 164-177.
- Chai, J. M. (2011). *Conservation of Excavated Costume, Research Report of Excavated Costume from Kim's tomb in Suwon*. youngin, Republic of Korea, 52-77.
- Cho, S. H. (2005). A study on the arts and Craft work of the Korean Traditional shoes (1) - focused on the women's shoes - Un Hy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8(3), 55-63.
- Cho, S. H. (2006). Comparative Study on Shoes Culture of Korea and Mongol - focusing on Boot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9(2), 59-65.
- Cho, S. H. (2009). A Study on Ambulatory Culture of Shoes and Aesthetic Sense of Costumes, -considering on symbolic sense-. *Korea Historical Folklore*, 7-31.
- Cho, S. H. (2013). A Study on the Shoes the deceased in Josea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16(3), 5-16.
- Cho, S. H. (2011). *Making HU-HAE, From Head to toe Hats and Shoes*.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 Cho, H. S. & Lee, E. J. (2007). *Textiles of excavated costumes from Kimwhoak' tomb, Research Reports of Excavated Costumes*. Youngin, Republic of Korea: Gyeonggi Provincial Museum, 102-146.
- Cho, H. S. (1982). *Hwa Jae(靴制), Costume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Choi, E. S. (2010). *A Study of Costumes Excavated from Yi, Jin-sung's Tomb, Research Reports of Lee Jin-sung's Excavated Costume*. Seoul,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Choi, G. H. (2015). *HWA-HYE : Korean Traditional Shoes*. Seoul, Republic of Korea: Mijinsa.
- Cho, Y. S. (1809). *Nasan-jip* [羅山集], Vol. 8. *Garye-dogam-uikue Youngjo-Jeungsoon-whanghu* [嘉禮都監儀軌 英祖貞純王后] (1759).
- Hwang, Y. S. (1791). *Yije-yugo* [頤齋遺藁], Vol. 20.
- Haje-llgi [荷齋日記] (1891). Vol. 1.
- Hong, D. Y. (1783). *Damhun-jip* [湛軒書外集], Vol.10.
- Hong, J. P. (1852). *Maesanjip* [梅山集], Vol.8.
- Jeung, M. S. & Mok, J. A. (2007). *Dimension and Figure with Measurement of Excavated Costumes from Kimwhoak' Tomb, Research Reports of Excavated Costumes*. Republic of Korea: Gyeonggi Provincial Museum.
- Jeongjo, *Ilseunglok* [日省錄] (1792).
- Jeongjo *Sillok* [正祖實錄] (1798).
- Jeongjo (1800). *Hongjae-jenseo* [弘濟全書], Vol.33.
- Jeong, Y. Y. (1836a). *Dasansi-moonjip* [茶山詩文集], Vol. 9.
- Jeong, Y. Y. (1836b). *Yeoyudang-jeonseo* [與猶堂全書], Vol. 3, No. 3.
- Jinhyun-uikue* [進宴儀軌] (1902), Vol.3.
- Joongjong Sillok* [中宗實錄] (1525).
- Kwon, Y. S. (2007). *Research Report of The Excavated Costume from Song (YeSan) In early and middle of Chosean*. Daejeon, Republic of Korea: Daejeon Metropolitan city.
- Kim, J. S. (1631). *Sangryebiyo* [喪禮備要].
- Kim, K. S. (1802). *Jeungeong-gyorin-ji* [增正交隣志].
- Kim, Y. S. (1988). *An Illustrated Dictionary of Korean Costume* (韓國服飾史辭典). Seoul, Republic of Korea : Minmoongo.
- Kim, Y. J. (2012). *excavated costumes, Haengju Kee's Costumes Excavated from family tomb of Yeongwol Shin Cla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Lee, H. D. (1835). *Nakhasaing-jip* [洛下生集], Vol.12.
- Lee, H. S (1986). *Korean Dictionary, Min Jeung Seo Rim*. Seoul, Republic of Korea.
- Lee, J. H. (1471). *Haedong-jaekuk-gi* [海東諸國記].
- Lee, K. J (1640). *Boosang-lok* [扶桑錄].
- Lee, M. E. (2011). *Study on Excavated Costume, Andong Kim, A Military officer, Tomb Excavation Costume Study*.
- Lee, E. J. (2008). A Study on the Dress Style of King Young-Jo's Birthday Participa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11(2), 75-90.
- Lee, J. (1746a). *Sarye-pyeonram* [四禮便覽], Vol. 1.
- Lee, J. (1746b). *Sarye-pyeonram* [四禮便覽], Vol. 3.
- Lee, S. K. (1700). *Yangwha-jip* [養窩集] Vol 7.
- Mangiyoram* [萬機要覽] (1808). Vol. 4.
- Moomyengja-jip* [無名子集文稿](n.d.). Vol. 3.
- Nam, G. C. (1840). *Geumreung-jip* [金陵集] Vol. 12.
- Oh, J. S. & Noh, S. J. (2012). *Conservation of Excavated Costumes, Haengju Kee's Costumes Excavated from Family Tomb of Yeongwol Shin Cla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Park, S. S. (2008). *Jeongsa-gongshin* [靖社功臣], A Military Officer, Shin Gyung-Yoo's [申景裕] Tomb Excavated Costume Study. Young-in, Republic of Korea: Dankuk University Museum.
- Sejo Sillok*, [世祖實錄] (1460).

- Sejong Sillok*, [世宗實錄] (1420).
Sejong Sillok, [世宗實錄] (1432).
Sejong Sillok, [世宗實錄] (1435).
Sejong Sillok, [世宗實錄] (1446).
Sejong Sillok Oryeui [世宗實錄 五禮儀] (1450).
Seungjong Sillok [成宗實錄] (1480).
Seungjong Sillok [成宗實錄] (1493).
Song, M. K. (2007). A Study on Excavated Costumes from Kimwhoak' Tomb, *Research Reports of Excavated Costumes*, 148-283.
Song, S. Y. (1689a). *Songja-daejeon* [宋子大全] Vol. 2.
Song, S. Y. (1689b). *Songja-daejeon* [宋子大全] Vol. 39.
Song, S. Y. (1689c). *Songja-daejeon* [宋子大全]
Sookjong Sillok [肅宗實錄] (1718).
Sung, H. Y. (1836) *Yeunkyeungje-jeonseo* [研經齋全集] Vol. 53.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1725).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1626).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1879).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1891).
Taejong Sillok, [太宗實錄] (1408).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 *From Head to Toe, Hats and Shoes*, Seoul, Republic of Korea.
Ye, Y. H. (1997). *Minsok-gongye maik* [民俗工藝 脈]. Seoul, Republic of Korea: Daewonsa.
Yoongjo Sillok [英祖實錄] (1750).
Yoo, S. P. (1811). *Dongsa-lok* [東槎錄].